어린이 눈높이 '팔만대장경' 10년만 완간



팔만대장경 전 10권
신현득 엮음 / 송교성 그림
솔바람 / 각권 1만원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

부처님 지혜·자비 담은 일화 선별
신현득 작가 재구성·생동감 더해
10권 완간…"불연의 씨앗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팔만대장경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어린이 독자를 위한 새 옷을 입었다.

〈팔만대장경〉(전 10권)은 팔만대장경 속 우화를 아동문학계의 거목 신현득 작가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책이다. 2018년 1권이 선보인 데 이어 최근 9·10권이 출간되며 전체 10권으로 완간됐다. 기획부터 10여 년이 걸린 대장정이다.

신현득 작가가 1990년대 펴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쓰였다면, 〈팔만대장경〉은 초등 저학년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것이 특징이다. 올해 93세인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불연(佛緣)을 맺어 주는 일이라며 흔쾌히 재집필에 나선 것. 작가는 경전 속 이야기를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하고 명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되 생동감 있는 리듬으로 글을 다듬었다.

신 작가는 "이번 작업은 팔만대장경 속 우화를 오늘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었다.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어렵지 않게, 즐겁게 만날 수 있다면 제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조용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웃음 짓게 하는 삽화는 일러스트레이터 송교성 작가가 그렸다. 송 작가는 우리나라 1세대 세밀화가인 송훈 선생의 아들이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 경전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야기 속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며 "10년 동안 이어진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경전이 품은 깊이를 어린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완주할 수 있었다"고 완간 소회를 밝혔다.

출간에 힘을 보탠 이는 또 있다. 〈어린이 팔만대장경〉을 기획·편집했고, 동출 스님에게 〈팔만대장경〉 출간을 제안한 형난옥 나녹 출판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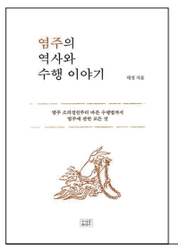
형 대표는 "2016년 무렵 출판사 운영을 고민하고 계시던 동출 스님을 만났고, 20년 넘게 불교만화 출간에 힘쓰신 스님의 노고와 그 결실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어린이를 위한 〈팔만대장경〉 기획을 제안했다"며 "마침내 완간돼 누구보다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9권에는 팔만 사천 개의 탑을 지은 아쇼카왕과 오계를 받은 식인귀왕,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한 마왕 파순의 일화 등이 담겨 있다. 10권에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부처님 전생담을 모은 〈육도집경〉 등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퀴즈 등이 실려 있다.

동출 스님은 "10년 전, 팔만대장경의 지혜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10권 완간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다"며 "해인사 장경판전의 바람과 햇살, 장인들의 정성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린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담고자 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책을 통해 팔만대장경이 지켜 온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출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해 책에 수록된 이야기와 일러스트를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불자라면 알아야 할 '염주의 모든 것'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
태경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7500원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의 저자 태경 스님은 경전과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전통 방식으로 염주를 만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사진은 정성껏 염주를 만드는 마산 도솔암 스님들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이 일러 주신 수행 도구
경전·불화·전통 제작까지 총망라
염불·관상 수행을 돕는 길잡이

불자에게 가장 친숙한 신행 도구인 염주. 염불이나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레 손에 쥐게 되지만, 정작 염주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태경 스님(조계종 법계위원회 의제실무위원)의 신간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해 염주의 기원과 역사, 수행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내 첫 전문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염주의 최초 기록이 담긴 〈불설목환자경〉 이야기다. 경전에 따르면 난국의 파유리왕이 부처님께 괴로움을 벗어날 수행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목환자 열매 108개를 꿰어 불·법·승을 외우며 염불하면 번뇌를 끊고 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번뇌의 숫자인 108과 수행 도구로서의 염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다. 또한 파유리왕이 염주 1000개를 만들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염주가 공동체에 전해진 수행의 가르침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의 저자 태경 스님은 염주를 수행 삼아 만드는 노스님과의 인연으로 염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포교 현장에서 불자들이 염주에 담긴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경전을 찾아 번역하고, 문헌에서 염주 영험담과 염주 도상의 불화를 찾았다. 인도·티베트·네팔 불교의 자료에서 염주에 관련된 도상과 설명을 찾았고 실제 염주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돼 염주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염주의 재료와 알의 개수에 담긴 상징, 의궤에서 규정한 염주 사용법 등을 설명해 실질적 수행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고려불화의 대표작인 '수월관음도' 속 염주 해석과 전통 방식으로 보리수 염주를 제작하는 무학산 도솔암 스님들의 사례는 학술적 정보와 현장성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대목이다.

또 경전 번역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염주 관련 기록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분석은 불교사 전개의 흐름을 염주라는 작은 사물을 통해 재조명하는 흥미로운 시도다. 부록에 실린 7편의 경전 원문 역시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염주의 기원을 알고, 경전의 뜻을 이해하며, 전통 제작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수행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한다. 불자뿐 아니라 불교 문화와 수행의 상징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넉넉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태경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바른 염주로 염불관상 수행을 통해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태경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의례실무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위원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 문화잡지, 12월 송년호 발간



〈불교문화〉 '다양성' 특집
월간〈불광〉 '사유수' 조명

불교계 문화교양지들이 다양한 주제의 12월 송년호를 발간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은 '다양성'을 주제로 월간 〈불교문화〉 12월호(통권 제30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특집은 '다양성, 왜 존중돼야 하나-서로 다른 길, 하나의 세상'으로 불교, 자이나교, 간디 철학 등을 통해 '다양성'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이나교의 관점주의와 철학적 아힘사'를,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는 '간디의 실재 다면성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자'를,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전쟁과 폭력, 평화, 그리고 불교의 무외시(無畏施)'를, 권선아 공감과자비연구소장은 '타자화 없는 상호존재'를 수록했다.

하반기 캠페인 '기도하는 삶을 살자'에서는 유정 다큐멘터리 작가가 신실한 신심을 보여 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깨달음의 길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불광미디어가 발간하는 월간〈불광〉 12월호(통권 제614호)는 '깨달음의 나무, 사유수'를 특집으로 다뤘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닫고, 입멸한 자리에는 언제나 나무가 있었다. 특집에서는 '나무'를 통해 불교의 역사, 신앙, 삶의 지혜를 되짚는다.

이미령 작가는 '다섯 그루 나무가 들려주는 붓다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섯 그루 나무의 시점으로 조명한다. 다섯 나무는 무수·잠부나무·보리수·사리쌍수 등이다. 노승대 민속학자는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을 이뤄 온 당산나무 신앙을 심층적으로 해설한다.

한평생 강백으로서 후학을 길러 온 지안 스님은 반야암을 창건한 1999년부터 매년 나무를 심어 왔다. 나무 심기를 '마음을 잘 쓰고 인연을 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스님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만날 수 있다.

불교미술과 단군신화 속 '나무'도 조명한다. 정진희 작가는 불교미술 속에서 버드나무가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분석하며, 조경철 작가는 단군신화를 통해 환웅이 맨 먼저 내려온 곳이자 땅과 하늘을 이어 주는 매개였던 신단수를 살펴본다.

4년 동안 '그림 속에서 찾은 사성제 이야기'를 연재한 보일 스님은마지막 글로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소개한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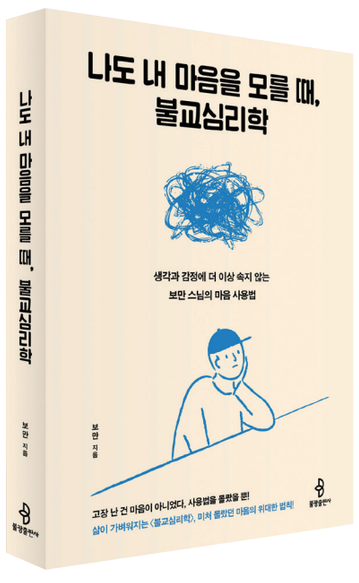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
화제의
베스트셀러!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다!"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40년 탐구 끝에 되찾은 진짜 '붓다의 말'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삶이 이해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붓다의 말,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지음
430쪽 | 24,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